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5월 17일(주일) 제1049호



부모님께 드리는 값진 선물 '예수님'

18일,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
전도대상자 440명 참석 ... 행사당일 주차장 사용 제한

드디어 내일(18일)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가 막 오른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부모님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에는 자녀들의 초대를 받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65세 이상 부모 440명이 참석한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가수 이무송, 노사연, 방송인, 오미희, 개그맨 이홍렬, 퓨전 국악팀 가아랑, 실버합창단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전도대상자의 손자 손녀들의 공연도 예고돼 있다.

전도본부 측은 "자녀들의 초청을 받

아 교회에 오시는 65세 이상 부모님들을 배려하기 위해 행사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장을 제한한다"고 밝히고 성도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는 지난 4월 말 대상자 모집을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전도에 돌입했다. 전도는 네 단계로 진행 중이다. 1단계는 중보기도 및 교육이다. 지난 4월 27일과 5월 11일 저녁 9시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기도모임과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2단계는 내일 막 오르는 맞춤전도집회다. 3단

계는 후속 프로그램이다. 6월 6일 전도대상자와 가족들이 '3대가 함께하는 기차여행'을 간다. 4단계는 세례식이다. 6월 둘째 주에 교육을 받고, 셋째 주에 세례를 받을 예정이다.

2013년 시작된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는 자녀들이 준비한 천국잔치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도대상자 426명 중 344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했다. 결심율이 무려 81%나 됐다. 51명이 세례를 받았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15 장로수련회 '기도하고 행하라'

'2015 장로수련회'가 지난 15일부터 1박2일 동안 가평교원비전센터에서 열렸다. '기도하고 행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장로수련회에는 장로 228명, 목사 24명이 참석해 온누리교회의 지난 30년과 앞으로 30년에 대한 비전을 나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개회예배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면서 "서로를 수용하

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온누리교회가 지난 30년간 지켜온 핵심가치인 3개의 뒷선교의 영성, 창조의 영성, 하나님의 영성)과 온누리교회가 도전하고 모험할 5개의 뚝새로운 선교모델,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차세대 복음화와 양육방안, 통일한국의 주역이 되는 교회, 거룩한 직장을 만드는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련기사 10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 르포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현장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의료 활동 및 구호품 전달

/ 고대선 부장
(NGO 더딴진세상)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사이로 흙먼지에 뒤덮인 사람들이 보였다. 8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네팔 지진피해 현장은 처참했다. 구호물품이 부족하다고 여기 저기서 아우성이고, 계속되는 여진은 구호활동을 더디게 만들었다. 구조대원들의 안전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네팔 지진피해 현장에서 사활을 건 구호활동을 벌였다.

나는 지난 5월 1일 긴급구호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일행보다 먼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 향했다. 카트만두 공항 활주로는 구호품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구호대원들로 발디딜 틈 없었다. 제각각 유니폼을 입고 구호물품을 담은 상자를 옮기느라 분주했다. 공항 건물은 바닥 균열 말고는 별 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다. 공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봄비는 공항을 벗어나 카트만두 시내로 접어들었다. 차창 밖으로 무너진 담벼락이 보였다. 지진 발생 일주일일 다 되어가는 시점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표정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무너진 건물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무너지지 않은 건물들도 균열이 생기고, 기울어져 불안해 보였다. 도시 곳곳에 천막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지붕만 만들어 놓고 평상을 침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해가 지면 기온이 떨어지는 산간지역 특성상 감기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았다. 실제로 지진피해 지역에서는 감기환자와 파부병, 눈병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카트만두 도심을 벗어나 북쪽 경계지역으로 이동했다. 지진피해 현상이 본격적으로 눈에 들어왔다.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한 인구 1만5천명 규모의 싸쿠(Sankhu) 마을은 주택 500여 채가 무너지고, 72명이 사망했다. 무너지지 않은 집도 대부분 균열이 생기고, 기울어져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 버렸다.

아곳에도 전 세계에서 온 전문 구조단이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었다. 주민들도 무너진 건물 잔해를 뒤지며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신들의 귀중품을 찾으려 분주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뺨뺨을 하다가 매몰된 사람도 있고, 공터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매몰되기도 했다고 한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아이를 만나보았는데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멍한 표정으로 눈망울만 굴리고 있었다.

네팔 정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쌀 5kg씩 지원했고, 인도 시크교도들이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한국, 중국, 일본, 터키, 프랑스 등에서 온 구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임시진료소에서 매일 300명의 환자들을 진찰했다.

호팀들이 구조 활동을 돕고 있었다.

싸쿠지역을 지나 고산지대로 접어들었다. 멀리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자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히말라야는 여전히 그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마을은 처참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곳을 물이 풍부해서 식수걱정은 없다는 점이다. 산에서 흐르는 개울 물을 호스로 연결해 집 근처에서 수도를 틀면 물이 나왔다.

‘네팔기독교인사협회’를 찾았다. 네팔기독교인사협회 사무실 벽에 지진 피해지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카트만두 북쪽으로 산악 지역을 따라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니 가난한 산골 마을 주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직도 접근이 어려워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가슴을 때렸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의 활약상

5월 4일 네팔에 도착한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구호품을 트럭에 가득 옮겨 싣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의료팀 7명, 구호팀 12명, 현지 거주하는 사역자 4명, 현지 지도자 2명으로 구성되었다. NGO 더딴진세상, 의료선교팀 CMN, 청년부, 온누리미션, 두란노해외선교회 사역자, 네팔 현지 목회자와 교회가 연합해 사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카트만두 서쪽, 진양지에서 약 20km 떨어진 고르카(Gorkha) 지역 가쿠(Gankhu) 마을과 나리시위(Narashwor) 마을을 찾았다. 카트만두에서 차로 6시간 정도 걸리는 먼 길이라 구호품 1,120세트를 싣고 피해 주민들을 향해 새벽 5시에 출발했다. 가쿠 마을과 나리시위 마을은 규모가 있는 시골 마을이다. 도로를 따라 상가도 있고 버스도 다닌다. 이번 지진으로 중고등학교 교실이 무너

져 휴교 중이다. 도로 위쪽 산골에 있는 초등학교도 무너졌다. 다행히도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부상을 당하거나 삶의 터전을 잃고 길가에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외국인이 마을에 찾아온 것이 처음이라며 주민들이 구호팀을 반겼다. 우리는 도착 즉시 의료 활동 준비와 구호품을 전달했다. 무더운 날씨에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쌀 10kg 담요 1장, 라면 두 박스, 뿌런다나(눌러서 말린 쌀에 양념을 한 음식), 식용유, 소금, 그리고 비스킷 등을 가구당 한 묶음씩 전달했다. 산 속에서 살던 주민들은 2시간씩 걸어 내려와 진찰을 받고, 구호물품을 든 자루를 등에 지고 돌아갔다.

임시 진료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평균 300명의 환자들을 진찰했다. 근육통과 관절염, 허리디스크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도 많았다. 지진으로 인한 골절상과 찰과상 환자들도 있었다.

구호품 전달과 의료 활동 외에도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도 있었다. 조경근 팀장과 김영미 팀장이 현지어 통역과 중보기도를 맡았다. 기도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위로가 된다며 기도를 받겠다고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었다.

어누그라하(은혜)교회 사두람(Saduram) 목사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이 해주었다”면서 고마워했다.

네팔 정부는 구호품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길목마다 경찰을 배치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구호품이 왔고, 전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다.

네팔은 2008년 왕정이 끝나고 공화정이 선포된 이후 정식 정부가 세워지지 못했다. 임시 정부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지진피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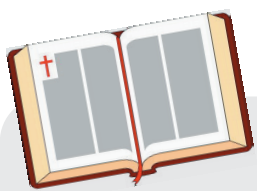
어떤 지역에서는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

는 반면서 다른 구호팀의 물품을 약탈하기도 했다. 도로가 산을 따라 구불구불 나 있기 때문에 피해지역으로 물품을 싣고 가는 트럭을 막고 텐트와 식량 등을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부 도시 다딩베시(Dhadingbesi)에서 차로 비포장도로를 4시간 달리고, 다시 3시간을 걸어 산골마을을 탈리(Thali)에 있는 홀리미션교회(Holy Mission Church) 성도와 주민들을 찾아갔다. 그들에게 쌀 10kg 50자루, 텐트 50동, 담요 50장을 전달했다. 이 마을은 온누리미션에서 활동했던 비루 목사의 지교회에 있는 곳이다. 지진 발생 당시 예배 중이던 성도들이 대피했다. 교회 지붕이 무너지면서 예배 처소가 사라졌다. 교회 장로 칸차(Kancha)의 12살 막내아들이 매몰되어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마을 대부분의 주택들도 무너져 천막이 필요했다. 이 지역은 재건하기 어려워 정부에서 새로운 거주지를 줄때까지 힘든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형편이다.

고레다라(Gore dara) 마을에서도 의료활동과 구호품을 전달했다. 이 마을은 75가구가 모여 사는 해발 1,200m 고산지대다. 이 마을 모든 가구가 지진의 피해를 입었다. 학교와 보건소가 무너져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비가 오기 전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가구당 지붕 합석 12장씩 전달하고, 쌀 25kg을 나눠 주었다.

30℃를 훌쩍 넘는 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교회 바닥에서 침상에 몸을 맡겨야 하는 힘든 생활이었지만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원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을 다했다. 참혹한 지진피해 현장에서도 사랑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했다. 구호품을 지원받은 한두교 신자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외쳤던 고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모세의 얼굴의 광채

출 34:28~35

“모세의 영광은 일시적으로 빛나다 사라졌지만,
우리의 심령 속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나타납니다. 얼굴에 나타난 마음의 상태가 습관화 되면 인상이 되고, 표정이 됩니다.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표정과 인상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어느 정도 엿볼 수는 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있던 모세의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8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산을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을 보고 그 돌 판을 깨버렸습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율법을 새긴 돌 판을 받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급속하며 이뤄졌습니다.

모세는 적어도 두 차례,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 몸이 연약해지고, 얼굴이 초췌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80일 동안 금식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모세의 얼굴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현상을 기계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한다면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도 변화될 것이라는 것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둬달라고 간구한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필전 목사는 모세의 기도가 1400년 이후 응답되었다고 했습니다. 1400년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스피전 목사는 그 사건을 1400년 전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한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그 스스로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엘리야와 모세가 승천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에 임한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입니다. 여러분, 빛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 속에서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8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백성들을 향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한 기도도 들으시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에도 더 귀 기울입니다.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 사람들을 위해 나의 기도제목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마음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거나 원수를 위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주십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모세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는 문장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빛’이라는 단어와 ‘빨’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비슷해서 오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산피에트로 인 빈클리 성당’에 머리에 두 개의 빨이 달린 모세상이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번역이 잘못되어서 머리에 빨이 난 모세상을 만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나는 얼굴이 될 것이고, 그 길이 아니라면 빨난 얼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난 얼굴로 살지 아니면 빨난 얼굴로 살지 두 가지 인생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얼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때로 보이지 않는 빨이 튀어 나올 때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자 백성들은 그 빛이 강렬하고 두려워서 가까이 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시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두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음으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29절).

모세는 왜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는 거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하느라 자기 얼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빛나기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도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영광의 임재

치유의 절정은 나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요즘 심리적인 문제가 많아지는 것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 다섯 이상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우울증이 없다고 합니다. 우울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쏟아 부을 대상만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백성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빛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자신이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빛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진정으로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 그런 줄도 모릅니다. 영광은 스스로 주장하고 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영광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

한 일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왼손이 모를까요. 이 말씀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진짜 겸손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겸손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바로 나도 모르는 영광입니다.

모세의 수건과 예수 그리스도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30절).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마칠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33절).

모세가 광채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수건을 썼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광채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욕구가 무엇입니까.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떠는 것을 즐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것을 즐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은 잘못된 권력욕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쏟아내는 것을 즐기고, 그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도 잘못된 권력욕입니다.

만약 모세가 잘못된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다면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림으로써 백성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영광을 가릴 줄 아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영광스런 얼굴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죽였습니까. 협박했습니까. 위협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빛나는 얼굴이 두려웠을까요.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면 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백성들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가정의 달 기획

1. 효(孝) 2. 부부 3. 가정 4. 스승

행복한 가정,

부부는 둘이 하나 되어, 소통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존재
자녀, 부모와의 관계도 부부사이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져

부부사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 책임도 막중하다. 둘이 좋아 알콩달콩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부모노릇, 자식노릇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지 몰랐다. 사실 부부가 된다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남들은 결혼을 쉽게 하는데 나한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가정의 핵심은 부부다. 부부사이가 어떠냐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달라진다.

사전적으로 부부는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지만, 그 부부라는 말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

가정의 위기는 부부의 위기에서 시작된다. 남편이 '남의 편', 아내가 '안해'만 외치는 사람이 되면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부부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이요, 핵심이다. 부부의 날(5월 21일)을 앞두고 부부의 탄생, 부부의 참 의미와 역할을 묵상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힘난한 부부의 탄생,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결혼

요즘 청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들을 이른바 '5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 포기)'와 '실신시대(실업자+신용불량자)'라고 부른다. 5포세대가 꿈과 희망마저 포기했다는 의미로 '7포세대'라고도 부른다. 왜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경제력이 가장 큰 요인이다.

우선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2%(2015년 4월 기준)다. 청년 실업률에 대한 통계가 집계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결혼을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혼인율)는 6건으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다. 결혼 적령기 인구가 줄고, 청년실업,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결혼을 포기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결혼비용은 평균 2억 3,800만원이라는 조사가 있다. 신혼집 마련 1억 6,800만원, 예단혼수용품 3,000만원, 예식 1,900만

원, 예물 1,600만원, 기타 500만원을 쓰고 있었다.

대졸신입사원 평균연봉이 2,889만원이다. 약 8.2년을 돈 한 톨 안 쓰고 꼬박 모아야 결혼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때문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1995년 남자 28.4세, 여자 25.3세였던 초혼 연령이 지난해에는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4살이나 증가했다.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결혼의 조건은 무엇일까. 남녀 모두 성격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2위부터는 남녀의 견해가 달랐다. 남성은 외모, 여성은 경제력을 꼽았다. 희망하는 배우자의 직업은 공무원이었다.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상적인 남편의 연봉은 4,000~5,000만원 미만(22.5%), 3,000만원~4,000만원(20.3%)이었다. 성격은 기본, 외모와 경제력은 답이었다.

결혼생활은 유토피아가 아니었다
이혼율 세계 3위 ... 황혼이혼율 역대최대

어렵게 결혼에 골인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결혼생활은 생각했던 유토피아가 절대 아니었다. 아무리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부부생활이라지만 견디기 쉽지 않았나보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1만 5,500건이었다. 하루 약 300쌍이 이혼하고

있다. 이는 부부 3쌍 중 1쌍이 이혼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이혼율은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 스웨덴에 이어 세 번째다.

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난해 이혼한 부부들에게 사유를 물었다. 성격차이가 44.6%, 경제문제 11.3%, 배우자 부정 7.4% 순이었다. 성격과 경제력을 보고 결혼해놓고 같은 이유로 이혼하고 있었다.

20년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하다 이혼하는 황혼이혼율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황혼이혼율은 전체 이혼의 30%에 달한다.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신혼이혼율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나이 들수록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혼생활을 지속할수록 갈등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별로는 7월에 이혼이 가장 많았다. 설날에 부부 갈등이 시작돼 봄에 이혼 절차에 들어가고, 7월에 이혼한다는 분석이다. 명절 증후군만이 이혼의 결정적 사유는 아닐 것이다.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명절에 폭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부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기본단위다. 하나님

부부에게 달려 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공동체다. 남녀가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장(場)이 바로 가정이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은 부부가 해야 한다. 모든 가정의 키(Key)는 부부가 가지고 있다. 부부가 어떤 가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국가를 만드는 길이다. 부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혼하면 당연히 행복할거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행복하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꿈꾼다. 그런데 지나치게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꿈꾸면 안 된다. 부부로 산다는 것은 갈등과 위기를 함께 헤쳐 간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남자 324세, 여자 298세에 결혼한다. 연애기간을 포함하면 30년 동안을 다른 방식으로 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결혼이다. 연애기간에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모두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인간은 다른 점을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고 간주하기 쉽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부갈등도 배우자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면서 시작된다.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꾼다면 내 중심이 아니라 배우자를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배우자를 섬기면 배우자도 나를 섬기는 것이 이치다.

이렇게 소통하래 묻고, 듣고, 표현하고, 사과하고

부부가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통이 답이다. 소통에 관한 일화가 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50년을 함께 살았다. 그 부부는 닭고기를 즐겨먹었다. 남편은 닭다리를 좋아했지만 매번 아내에게 양보했다. 자신은 닭날개를 먹었다. 그것을 50년 동안 반복했다. 어느 날 저녁에 닭고기를 먹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냈다.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

어안이 병병해진 남편이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늘 당신을 생각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닭다리를 양보해주었소”

아내가 다시 소리쳤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닭다리가 아니라 닭날개에요”

이 부부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좋아하는 닭고기 부위를 몰랐다.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혼한 부부들은 함께 있는 시간은 늘지만 소통할 시간은 부족하다. 남편은 일, 아내는 육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시간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소통하지 않는다. 소통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결혼

은 함께 멀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만들어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문제가 있을 때만 대화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

소통은 막힘이 없다는 의미다. 대화주제도 막힘이 없어야 한다. 돈, 자녀, 직장, 기도제목, 말씀, 성, 서운했던 일 등 모든 주제를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불편할 것을 걱정해 숨기거나 혼자 삭이면 오히려 독이 된다.

정확한 의사소통도 필요하다. 주로 남성은 직설화법, 여성은 간접화법을 사용한다.

아내가 “저 옷 참 예쁘네”라고 말한다면 “저 옷이 마음에 들었으니 선물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직설화법을 쓰는 남편들은 “아내가 저 옷을 예쁘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고만 생각한다. 이때는 남편에게 “저 옷이 마음에 들어. 한 벌 사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눈치, 몸짓, 짐작 등 은유적인 대화법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의 말을 경청(傾聽)해야 한다. 경청은 ‘귀 기울여 듣는다’는 의미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말하는 것을 새겨야 한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 1:19)고 했다. 경청이 대화의 시작이다.

말싸움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살다보면 실수할 수 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다. 분명 잘못된 것을 알지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인정하기 싫어서 쓰는 방법이 바로 “당신도 저번에 그랬잖아”, “당신한테도 문제가 있어” 등의 말싸움이다.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가 변명 전 마디보다 낫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부부는 가정에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남편은 남편역할, 아내는 아내역할을 할 때 가정이 완벽해진다.

남편의 역할은 바로 이것이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 5:25).

이탈리아 피사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랑의 유효기간은 1~2년이라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길어야 3년이라고도 한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된다. 남편도 아내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남편의 역할을 생계에만 국한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다. 영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의 신앙성



부부란 그 뜻 들여보면 안다

부부의 정
심은 대로 거둔다

부부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

그 정 세상 하직하던 날까지 그대로 간직하게 된다

부부가 서로 못 믿고 의심 속에 살게 되면

누군가가 임종시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자식들이 아무리 효도를 잘한다 해도

영감보다

할멈보다

누가 더 잘해 준다든가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고

그 뼈 있는 말 한 마디를 노랫말에 실었지

-박태훈의 해학이 있는 아침 중에서

숙을 도와야 한다. 세상의 가치보다 진리의 말씀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여성도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여성들에게는 이해심과 사랑이 많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 같이 그들에게는 애정이 많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사랑이 많은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남편이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도와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 무엇보다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한 남편은 사회에서도 존경받지 못한다. 남편의 모습은 아내가 결정한다.

부부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마 19:6).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다. 가정은 부

부가 지쳐나가는 것이다. 요즘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이혼부터 생각한다고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정리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세 번 재혼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용서와 인내는 사랑이 바탕이다. 부부는 참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서로 용납한다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둘이 하나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결혼생활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영위할 수 없다.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 할 때 행복하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무엇보다 부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부부에게 달려 있다.

젊은 부부들을 위한 ‘푸른누리공동체’

“아이가 아파서 순모임에 못갈 것 같아요.”
“오늘은 시택에 가야하는데 어찌죠.”

순모임에 가지 못할 사정이 생길 때마다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사역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어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에게는 흔한 일상인데도 이해를 구하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공동체가 있다. 바로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동체라고도 불리는 푸른누리공동체(담당: 이상진 목사)다. 푸른누리공동체는 올해 처음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출범했다. 푸른누리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젊은 부부, 임신 중인 부부,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을 만나봤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결혼하고 성인공동체에 소속되었어요. 성인공동체에서 순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제게 내아들과 나이가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왠지 모를 부담감이 느껴졌어요.”

“아직 아이가 어리다보니 까맣지 않게 순모임이나 사역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공동체 자체들이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고민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젊은 부부들은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거나 소속되어도 활동은 하지 않는 안개 순원이 되기를 자처한다.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어떤 이들은 수개월, 또 어떤 이는 수년 동안 안개 순원으로 지낸다.

양재 온누리교회 담당 이상준牧사는 그들이 안타까웠다. 그들을 보듬어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 목사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젊은 부부 안개 순원들을 불러 모아 공동체를 출범시킬 준비를 했다. 그렇게 안개 순원 10여명과 모임을 시작했다. 그 모임의 명칭을 YCM(Young Couple Meeting)이라고 불렀다. 공동체 출범 후 명칭은 푸른누리로 바뀌었다.

6개월 동안 공동체 출범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다양한 세미나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11개 순을 만

들었다. 지금까지 30여 가정의 매주 꾸준하게 출석하고 있다.

지난 주일(10일) 푸른누리공동체가 두 번째 소풍을 갔다. 양재 엘림동산에서 젊은 부부 60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목을 다졌다.

유진곤 강여리 성도 부부는 청년부 여호수아공동체에서 푸른누리공동체로 왔다. 이 부부는 “비슷한 연령대, 비슷하게 겪고 있는 고민과 걱정 등을 나누다보니 공감대 형성이 절로 된다”고 했다. 결혼한 지 1년 되었다는 김홍석, 서지영 부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비슷한 연령대가 모여 같은 문제들을 공유하는 것도 좋고, 육아나 가족 행사 등으로 순모임이나 사역에 빠질 때에도 같은 입장으로 이해해 주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이형민, 이효정 부부는 “푸른누리는 출산이나 육아 문제 등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을 위한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올해 출범한 푸른누리공동체는 이제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푸른누리공동체는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예배를 드린다.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믿음홀에서 순모임을 한다. 매주 30여 가정이 참석하고 있다. 순모임을 할 때 아이들을 위한 방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올해 출범 … 11개 순, 30가정 예배드리는 중
비슷한 연령대,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장점



올해 출범한 푸른누리공동체. 이날 아이의 돌을 맞은 유진곤, 강여리 성도 부부.



이상진 목사(푸른누리공동체)

어느 날 저녁 리더십 카톡방에 긴급한 문자가 떴다.

“저희 윤유가 열이 떨어지지 않아 응급실에 가고 있어요. 기도해주세요!”

푸른누리공동체 스테프로 섬기는 한 자매의 긴급한 문자였다. 총무님과 긴급하게 연락해서 함께 병원으로 심방을 가기로 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가보았다. 다행히 아이는 열이 떨어졌는지 침대에서 엄마랑 놀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시간 전에 해열제를 먹고 열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달려왔기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와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병원을 나왔다.

고열로 놀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아이를 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이 없다. 요즘 푸른누리공동체 자체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이와 같다. 젊은 부부들은 인생의 고열을 겪는 시기에 놓여 있다. 작게는 20여년, 많게는 40여년을 다르게 살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다보니 서로의 다름이 부딪쳐 마찰을 일으키고, 고열을 낸다. 신혼의 재미도 잠깐. 아이가 생기면 맞벌이를 해야 하는 부부들에게 아이 키우는 일은 인생의 또 다른 고역이다. 그래서 열이 난다. 아이가 하나에서 둘이 되면 그때야말로 부부관계에서도 육아에서도 열이 난다. 열이 40도를 넘게 된다.

남편은 직장에서 승진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 남기 위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야 한다.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인생을 빼앗긴 것 같은 자괴

감이 몰려온다. 영적으로 해열을 해보려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다. 하지만 아이가 예배 때마다 울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인다. 로비에서 모니터로 예배드릴 때가 많다.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다. 순모임을 하다가 아이가 울면 순모임에 방해가 되어 참석을 꺼리게 된다. 그렇게 한두 해를 지나다 보면 어느새 뜨거웠던 신앙은 온데 간데 없고 반갑데기만 남은 것처럼 영적 공허함이 찾아온다. 그렇게 교회도, 하나님도 멀리하게 된다. 이것이 이 시대 젊은 부부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교회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부부들의 현실이다.

그들을 볼 때마다 안쓰럽다. 가장 푸르려야 할 때에 생기없이 눌러있는 아이들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푸른누리다. 푸른누리

공동체는 젊은 부부들에게 해열제가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순모임 중에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뛰어놀아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또 같은 처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순원으로 만나 마음을 털어놓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고열을 식혀준다.

온누리교회의 또 다른 30년을 푸르게 할 젊은 부부들이 ‘푸른누리공동체’라는 좋은 발에 심겨져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 모종들이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한다. 나는 그들을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고 기대가 되고 기도하게 된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빛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는다. 푸른누리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한다.

해열제

윤형주 장로와 함께 '농어촌 러브소나타'

양재 농어촌선교팀, 문경에서 전도집회 개최

300명 참석 ... 문경의 밤하늘 수놓은 간증과 찬양

지난 12일 양재 농어촌선교팀이 문경 점촌침례교회에서 전도집회 '농어촌 러브소나타'를 개최했다. 이날 윤형주 장로는 예수님의 대가없는 사랑을 노래했고, 300명의 참석자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참석자들은 윤형주 장로와 함께 2시간 동안 노래하고, 박수치고, 웃고, 눈물 흘렸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간증이 문경의 밤하늘을 수놓은 전도집회 현장에 다녀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문경은 경상북도 북서부에 위치한 시(市)로 약 7만 6천명이 살고 있다. 문경하면 문경새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문경새재는 조선시대에 동래(부산)에서 한양(서울)을 이어주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험준한 때문에 '나는 새도 쉬어간다'는 뜻에서 이름이 새재(鳥嶺)란 설도 있고 새로 난 고개라는 의미에서 '새재'가 되었다고도 한다.

삼국시대부터 불교문화가 전해진 길목이던 문경에는 수많은 절터와 불교문화재가 남아 있다. 신라 시대에 지증대사가 세운 봉암사, 원효대사가 세운 원적사와 심원사, 보조국사가 세운 해국사, 대승사, 마의태자가 머물렀다는 미륵리 절터 등 불교문화가 꽃을 피운 도시다.

문경에는 100여 개의 교회가 있다. 규모가 큰 교회도 있지만 시골 미자립교회가 대부분이다. 불교문화가 발달한 지역적 특성으로 전도하기 힘들고, 기독교 신자도 많지 않다.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양재 농어촌선교팀이 문경에서 전도집회 농어촌 러브소나타를 열기로 결정했다. 마

침내 지난 12일 그 꿈을 이뤘다. 문경 점촌침례교회에서 윤형주 장로와 함께 하는 농어촌 러브소나타 그서막이 올랐다.

별이 빛나던 문경의 밤

지난 12일 오후 3시, 양재 온누리교회에 농어촌선교팀원들이 모였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오늘 행사에 대한 계획도 이야기했다. 전도집회를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았다.

승합차 한 대에 9명이 몸을 실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도 같이 탔다. 부리나케 문경으로 달렸다. 가는 길에 비가 개이고 맑은 하늘이 인사했다. 가는 길부터 기분이 좋았다.

서울에서 2시간을 걸려 문경 점촌침례교회에 도착했다. 양재 농어촌선교팀원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다. 문경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사들이 양재 농어촌선교팀원들을 맞이했다. 문경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사들과 양재 농어촌선교팀원들이 함께 문경 지역의 복음화를 간구하



윤형주 장로가 간증과 노래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는 중보기도를 했다. 농어촌 러브소나타가 그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저녁 7시. 문경 점촌침례교회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입구에는 봉사자들이 벌써부터 나가 참석자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하고 있었다. 어느새 본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윤형주 장로가 무대에 올랐다.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윤 장로가 '조개껍질 묶어'라는 곡의 숨은 일화를 들려주고 노래를 시작했다. 참석자들이 신이 났다. 함께 손뼉치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윤 장로는 육촌 형인 시인 윤동주에 대한 추억도 나눴다. 기타연주와 함께 윤동주의 '별 헤는 밤'도 낭송했다.

이날 전도집회의 하이라이트는 윤 장로가 예

수님을 만난 간증이었다. 윤 장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다. '죄짐 많은 우리 구주(새찬송가 388장)'를 부르며 참석자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권면했다. 그는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도 노래했다.

윤 장로의 간증과 찬양이 이어질 때마다 참석자들이 눈물 흘렸다. 집회의 대미는 영접기도가 장식했다. 참석자들이 눈을 감고 기도를 따라했다. 소리 내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한다고 부르짖었다. 밤이 깊어가던 문경에서 들은 그 기도는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다.



칼럼 정재욱 목사(농어촌선교팀)

양재 농어촌선교팀은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소재한 30개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있다. 양재 농어촌선교팀은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강의동 207호에서 모임을 가진다. 농어촌미자립 교회와 그곳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농어촌교회를 도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농어촌사역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많은 성도들에게 관심을 받기 어려운 사역인 것 같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양재 농어촌선교팀은 몇몇 팀원들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고향, 부모님의 고향인 그곳에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있다.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 농어촌사역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노인들만 남겨진 교회, 사명을 지키기 위해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다. 그 목사님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

이다. 예전에 농어촌교회 탐방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도심 교회로 떠나보려고 했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저 장례 치러주시고 가져야지요. 목사님이 아니면 누가 저의 마지막을 받아주겠어요?' 그 말에 차마 떠나지 못했다"고 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농어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그 교회들, 그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농어촌의 영혼들이 있기에 농어촌선교팀은 그분들을 섬기고 있다.

양재 농어촌선교팀은 도움을 요청하는 미자립교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방문하고 있다. 농어촌선교팀과 연결된 농어촌교회에서 시설물의 수리를 부탁하면 재능기부팀(수리)과 보수의 재능을 가진 분들의 모임이 달려가 수리해드리기도 한다.

이번에 열린 농어촌 러브소나타와 같이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전도요청도 있다. 농어촌 어르신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각 지역 연합회와 함께 전도집회를 열기도 한다. 여름 이웃리치 시즌에는 파악된 농어촌교회와 공동체를 연결하고 결연해 국내 이웃리치를 갈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금의 농어촌교회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도심보다 더 많은 다문화가정이 있으며, 젊은 층이 농어촌을 떠나 노인인구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소외된 이웃들이 많은 곳이 농어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올해 양재 농어촌선교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눅 10:37)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양재 농어촌선교팀은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회문제와 교회의 역할

1. 홈리스 청소년들
2.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절벽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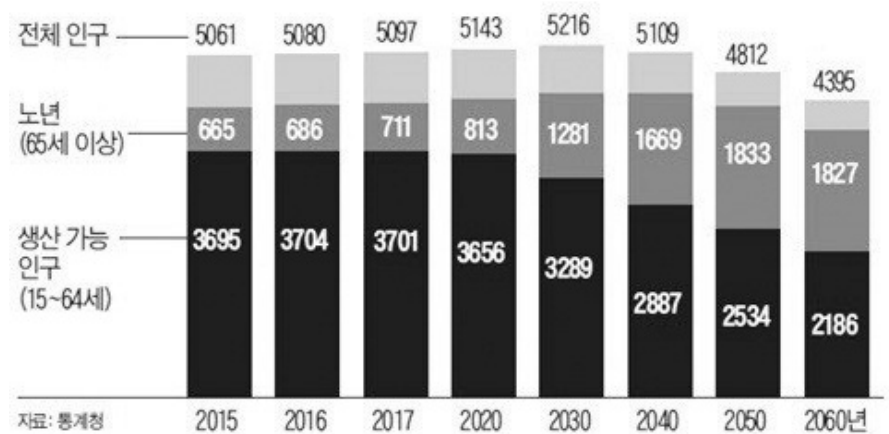
2018년부터 인구절벽 ... 어떻게든 젊은 인구 늘려야
교회가 연애, 결혼, 출산 장려하고 공동육아 실천해야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구 문제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다. 저출산 문제 극복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렸다. 잘 알다시피 한국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낮다. 지금 추세라면 41년 뒤인 2056년 우리나라 인구는 4천 만 명까지 줄어든다. 엄청난 격으로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65세 이상 인구 비율 7%)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데 25년, 초고령 사회(20%)로 가는데 11년 걸렸다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가는데 18년,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해 노인인구에 편입되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인구절벽 시대가 예고돼 있다. 대한민국 인구문제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인구절벽: 생산가능인구 줄고, 노인 인구는 급증 단위:만명



젊은 인구를 다시 늘릴 수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야 한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4%를 돌파해 고령사회로 들어설 전망이다. 나라가 빠르게 늙으면서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인구도 준다. 소비가 위축되고 축소되는 인구절벽이 코앞이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전문가인 해리 덴트가 생애주기상 소비가 정점을 치는 47~48세 연령대가 줄어드는 시기부터 경제가 급격히 둔화된다는 뜻에서 사용한 말이다. 소비가 얼어붙고, 연금 낼 사람보다 연금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 우려가 크다.

일본이 한국의 선행사례다. 일본은 1990년대 초 인구절벽에 섰다. 일본의 소위 단카이 세대(1947~1949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소비가 1998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이때부터 일본의 자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때부터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 됐다. 어디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일본이 타산지석이다. 한국이 일본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절벽 문제를 국가에게만 해결하라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회, 교회가 힘을 합쳐야 극복할 수 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하루 빨리 발벗고 나서야 한다.

평범한 꿈도 사치 ... 5포세대의 절망

요즘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아예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 시도조차 안 하고 있다. 어디 연애, 결혼, 출산뿐인가. 인간 관계, 내 집 마련도 포기한지 오래다. 이른바 5포세대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평범한 것을 꿈꾸는 것

마저도 사치가 되어버렸다. 한 취업사이트에서 20~30대 청년 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결혼(38.6%)과 출산(33.2%)을 꼽았다.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전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지출 등이 그 이유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갈수록 결혼을 늦추고 있다. 올해 1~2월 혼인 건수는 4만 9300건으로 전년대비 5.2% 줄었다. 혼인연령 고령화도 뚜렷하다. 지난해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였다. 10년 전 남자 30.5세, 여자 27.5세에 비해 약 2년가량 늦어졌다.

초혼연령 고령화는 곧바로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30세 이하에 결혼한 여성이 평균 2명의 자녀를 두는 반면 35~39세 사이에 결혼한 여성은 평균 0.8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해도 문제다.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미약하다 보니 출산을 꺼리고 있다. 여기에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어린이집 학대사고,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등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다. 출산을 포기하는 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아기를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말한다.

사회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

사회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다. 저출산 고령화의 피해는 교회라고 피해가지 않는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2060년에는 전국 대

부분 교회의 주일학교 분포가 5~10% 미만일 가능성이 크고, 장년의 60~70%는 55세 이상의 은퇴자와 노인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러한 현상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대한예수교회장총회(통합)가 2013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 수는 280만 8912명으로 전년대비 1.61% 줄었다. 특히 차세대 감소세가 가파르다. 차세대는 전년대비 유치부 3,958명, 유년부 5,679명, 소년부 7,915명, 중고등부 14,251명 감소했다. 전체 감소율의 60%를 차지한다. 8,500개 예정통합측 교회 절반가량이 교회학교가 없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해 1만2천 개이던 교회학교가 올해 380개나 줄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되면 한국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해석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성도들의 고령화도 두드러진다. 인구

절벽은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차세대가 없고, 교회를 이끌어 갈 젊은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더 어린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교회의 허리를 구성하고 있는 30~50대 성도들은 교회의 현재이자 미래다. 가속화된 고령화 현상 속에서 파장을 최소화하고, 조금이라도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 성도들에 대한 배려도 강화되어야 한다. 고령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영성을 세대 간 어우러짐과 멘토 역할을 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교회의 시대적 책임이 대단히 중요

사회적 변동에 대한 예견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미래목회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준다. G바너(George Barna)는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는 책에서 “교회는 불확실한 미래사회가 갖고 있는 공허함에 대한 의미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조직체”라고 했다. 교회의 시대적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연애, 결혼, 출산, 육아를 장려하고 도와줘야 한다. 젊은이들이 당연한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연애, 결혼, 출산, 육아를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제도적으로 도와야 한다. 결혼매칭 프로그램, 결혼장려 프로그램, 출산 및 육아를 실제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이를 낳아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부모와 교회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공동육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실천할 때다. 출산장려금, 예방접종 비용 지원 등 출산 및 육아경비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회의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7~28)는 말씀을 완수하는 길이다.

*인구절벽이란?

경제 전문가 해리덴트의 저서 《2018년 인구절벽이 온다》에서 처음으로 쓰인 용어. 생애주기상 소비 정점을 치는 47세~48세 연령대가 줄어드는 시기부터 경제가 급격히 둔화된다는 뜻에서 사용한 말.

*왜 2018년인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해 노인 인구에 편입된다. 대한민국은 이때 인구절벽이 시작된다고 예고되고 있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류모세 선교사



후무스와 올리브기름

요즘 방송가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먹방’ 일 것이다. ‘먹는 방송’을 뜻하는 신조어인 ‘먹방’은 어느덧 종편은 물론 공중파까지 장악해버렸다. 농촌과 어촌에서 삼시세끼를 해먹는 프로그램이 대박을 치고, 거기서 앞치미를 하고 웬만한 요리는 척척 해내는 배우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선교지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주변 중동권 지역자들과 연합해 리트릿을 할 때였는데 어느 지역자가 시나결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이스라엘에 전통 음식이란 게 존재하긴 합니까?”

당혹스럽긴 했지만 어느 정도 공감하는 질문이기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 음식이라고 소개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음식이라기보다는 중동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음식들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후무스’다. 후무스는 최근 웰빙 음식으로 알려져 한국에도 수입되고 있는 병아리콩을 갈아서 만든 소스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도 나올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피타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후무스에 발라서 매일 먹는다. 한국 사람들은 하루라도 감치를 안 먹으면 힘을 못 쓴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후무스가 그렇다. 그런데 후무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레바논의 전통 음식이다. 이스라엘의 전통 음식을 소개한다는 표현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을 소개한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올리브’로 대표되는 지중해 음식과 ‘후무스’로 대표되는 중동 음식의 절묘한 퓨전 일 것이다. 그야말로 웰빙 음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찾은 한국 사람들이 놀리는 것 중 하나가 호텔의 급수에 상관없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깔려 있는 샐러드 바(Salad Bar)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고기보다 비싼 게 아재이지만, 이스라엘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야채들로 가득한 샐러드 바가 관광객들의 입맛을 한껏 돋운다. 물론 야채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샐러드 바에는 드레싱 재료로 올리브기름, 레몬즙, 석류액 3종 세트가 거의 공짜처럼 구비되어 있다. 올리브는 성경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특산물이었으며, 지금 이스라엘의 국화이기도 하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하면서 그 대금을 이스라엘 산 고급 올리브기름으로 지불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산 올리브기름은 올리브를 생산하는 지



올리브 열매



후무스

중해변의 국가들 중에서 그리스, 스페인과 함께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야채와 올리브기름의 양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에게 샐러드는 주식에 곁들인 사이드 메뉴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선하고 당도가 높은 각종 야채를 듬성듬성 썰어서 올리브기름, 레몬즙,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뿌리면 그 자체로 든든한 한 끼의 식사가 된다. 이스라엘의 레스토랑에 가보면 메뉴판에 샐러드가 버젓이 메인 메뉴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야채와 올리브기름을 즐겨 먹기 때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풍,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다. 이것은 올리브기름에 다량 함유된 불포화지방산 때문이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이스라엘 구약성경투어: 7월28일-8월5일
타기-그리스 신약성경투어: 8월4일-11일
문의: 010-4902-1022



칼럼 임용성 목사(양천공동체)

비 오던 날 그리고 나의 어머니

나는 비를 좋아한다. 비는 투명한 소리를 낸다. 그리고 비는 생명이다. 새벽 미명에 빗속을 헤치고 아무도 없는 도로를 달릴 때 나는 이미 동화속 주인공이 되어 있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에 참 비가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한다. 초등학교 시절 비만 오면 학교에서 나눠준 체육복을 입고 비가 그칠 때까지 무조건 걸었다.

비가 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학교였다.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5분 정도 거리였는데 비를 맞으면서 지나가는 연인들에게 물을 튀기며 도망가기도 하고, 일부러 물이 고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신발을 흠뻑 젖게도 했다. 내가 다닌 초등학교 연못에 사는 잉어탕 이야기도 하고, 유관순 누나,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품을 채며 이야기도 했다. 운동장 어귀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뭇잎을 주어다가 물고인 곳에 띄워보기도 했다.

그 시절 어디 초등학교가 안 그랬겠나만 내가 다닌 초등학교에도 열 가지 비밀이 있었다. 그 열 가지 비밀을 알면 죽는다고 했다. 그 비밀은 유관순 누나랑 이순신 장군이랑 밤만 되면 싸워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 소풍가는 날만 되면 비가 자주 왔는데 그 이유가 비 오는 날 화장실에서 한 아이가 빠져 죽었는데 그 아이의 한이 남아서 소풍날만 되면 비가 온다는 이

야기. 공보관이라는 체육관이 있었는데 비만 오면 거기서 귀신들이 떠돌고 노니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일이지만 그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

비가 오면 반나절 이상을 그렇게 보내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집으로 갔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난 얼굴을 하고 계셨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화를 내시면서 부엌으로 끌고 갔다.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부엌에서 목욕을 했다. 그때는 고무대야에서 목욕을 했다. 그 고무대야에 나를 집어넣고 그 큰 손으로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렸다.

“감기 들면 어떡할라고 비만 오면 나가냐? 이 녀석아!” 하며 씻겨 주셨다. 그리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속옷을 새것으로 입혀 주셨다.

흔이 난 내가 누워있으면 어머니는 가만히 와서 무릎베개를 만들어 주시고는 나의 가슴을 쓸어주시면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 주셨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노래를 잘 불렀다. 나는 엄마의 품속에서 스르르 잠나라고 미끌어졌다. 그 순간이 나에게 천국이었다. 그 맛에 나는 비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다.

20대 후반에 어머니가 아프셨다. 나는 젊고 강해졌는데 어머니는 암으로 약해지시고 늙어가셨다. 나는 젊은 어머니를 통해 고난 가운데서



도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알았고, 늙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았다. 암에 걸린 어머니를 6개월가량 간호를 할 때 자주 어머니의 손을 만졌다. 어린 시절 내 엉덩이를 찰싹 때리며 나를 씻겨주시던 그 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는 환갑을 못 치르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그리고 비는 계속 왔다. 비는 나에게 어머

니가 불렀던 찬송소리로 온다.

곧장마가 올 것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엄마로 내 가슴에 찾아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을 다시 불러본다.

“엄마! 나 목사 됐어요. 엄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어요. 천국에서 봐요. 미안하고 사랑해요!”

온누리 사랑부



2008년에 열린 사랑부 연합예배.

서빙고 사랑부 창립 27주년

오늘 오전 9시 감사예배

서빙고 온누리교회 사랑부가 창립 27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동빙고 근린공원에서 감사예배를 드린다. 서빙고 사랑부 창립 27주년 기념예배는 6-13세 장애아동을 위한 공동체 꿈사랑부와 함께 연합

해서 드린다. 박철웅 목사(장애인사역본부장)의 설교 사랑 챔버, OMW팀의 축하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사랑부는 1988년 2명의 장애인청소년을 섬기기 위해 시작됐다. 그것이 온누리교회 장애인사역의 시초였다. 2003년부터는 장애인의 연령에 따라 사랑부와 예수사랑부(19세이상 청장년)로 분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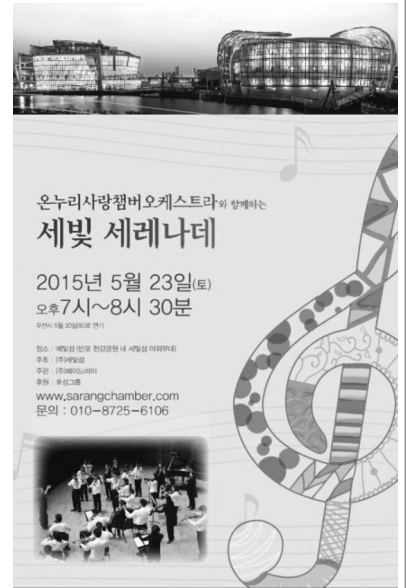
사랑챔버 '세빛 세레나데' 공연

5월 23일 오후 7시 한강공원 예빛섬

온누리사랑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세빛 세레나데' 공연이 막 오른다. 5월 23일 오후 7시부터 예빛섬(한포 한강공원 내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우천시 30일로 연기된다.

이번 공연은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온누리사랑챔버 오케스트라의 단독공연이다. 친근한 클래식과 찬양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사랑챔버 측은 "이번 공연은 입장료 없이 무료로 볼 수 있다"면서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격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10-8725-6106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잘 섬기고

장로수련회, 비전 공유 · 친목 도모 · 중보기도의 場

지난 15~16일 가평교원비전센터에 온누리교회 장로 228명, 목사 24명이 모여 수련회를 했다.

온누리교회 전체 장로의 과반이 넘는 숫자가 참석했다.

'기도하고 행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장로수련회는 온누리교회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귀한 행사인 만큼 준비위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썼다. 2015년 장로수련회 준비를 도맡은 강 의선 장로가 "이번 수련회는 장로의 본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처럼 장로들의 솔선 수범과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이번 장로수련회는 크게 세 가지로



2015 장로수련회에서.

요약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비전 공유 및 미래 준비, 장로간의 친목 도모, 부르짖음이 바로 그것이다. 수련회에서 만난 장로들은 아구동성으로 온누리교회가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

로 30년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더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차세대, 교사데이 행사 개최

17일과 24일 교사들에게 쿠폰 선물

차세대사역본부가 오늘(17일)과 다음 주일(24일) '2015 교사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다.

이 기간 동안 차세대 교사들에게는 격려와 감사의 의미가 담긴 쿠폰이 제 공된다. 이 쿠폰은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카페(도곡교육관 포함, 사이닝 글로리 제외), 두란노 서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차세대 교사들에게 전달되는 쿠폰에는 유치부 이수아 어린이가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이



삽입되어 있다.

NGO 더멋진세상 해외사역자 모집

오늘(17일)까지 서류 접수

NGO 더멋진세상에서 해외사역자(선교사)를 모집한다.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관심 있거나 해당분야 경력자, 해외봉사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영어 및 불어 가능자를 우대한다. 파견국가는 세네갈, 르완다, 감비아, 인도, 네팔, 미얀마, 모로코다.

NGO 더멋진세상에서 모집하는 해

외사역자(선교사)는 단기(2년 이하)와 장기(4년 이상)로 파견된다. 현지에서 지역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오늘(17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이메일(knkim@abetterworld.or.kr)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2271-2248

2015 카운트다운 참가자 모집

온라인으로 사전등록 시작

청년들의 예배와 선교를 회복하기 위한 컨퍼런스 '2015 카운트다운'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3번째로 개최되는 카운트다운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다. 26일과 27일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28일은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김병삼 목사(만나교

회),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 유병국 선교사(WEC 국제선교동원)가 메시지를 선포한다. 등록은 온라인(www.countdown.or.kr)에서만 가능하다.

회비는 5월 26일까지 3만 원, 6월 16일까지 3만 5천 원, 행사당일은 4만 원이다.

하나은행 573-910009-29305 (예금주: 온누리교회선교대회) 문의: 02-3215-371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제1049호 | 2015년 5월 17일(주일)

■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 한상선, 이은숙 부부

2013년 3월 결혼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예비학교에 참가했었다. 그때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읽으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교회에서 하는 교육과 순모임 등에 참석하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 2년이 지나 젊은부부학교에 참가했다. 젊은부부학교에서 배우고 접한 것들은 결혼예비학교에서는 느끼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었다. 결혼과 부부에 대해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다. 결혼예비학교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받은 교육이라 그런지 무엇이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젊은부부학교는 달랐다. 여러 부부들의 모습을 우리 부부에게 접목시켜 생각해 보았다. 가장 큰 깨달음은 서로 이해하려는 아주 작은 노력들이라도 실천하면 부부 사이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점이다. 젊은부부학교에 처음 참석할 때 우리 부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첫 주부터 우리 부부는 마음이 상했고 냉전을 시작했다. 둘째 주에는 싸움까지 했다. 우리 부부의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많이 노

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운함이 쌓였다.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잘 풀어야 하는 숙제임을 이번 젊은부부학교에서 배웠다. 서로의 마음을 보여주고, 나눌 때마다 막혔던 부분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했다.

3주차에는 1박2일 합숙을 했다. 우리 부부에게 그 시간은 최고의 순간이었다. 준비된 프로그램마다 은혜가 가득했다. 특히 프리포즈를 받는 것처럼 낭만적으로 진행된 예식을 잊을 수 없다. 남편이 나를 얼마나 섬겨주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해주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나도 남편처럼 그런 아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문제와 사연이 많은 부부들을 위해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주신 모든 스태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조장님 부부의 배려와 격려, 상담 덕분에 우리 부부가 젊은부부학교에 집중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젊은부부학교를 통해 일순간 많은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의 반복되는 답답함과 지쳐있던 마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배웠다. 앞으로 이 변화가 이어지도록 젊은부부학교 모임과 사역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 남양주 '등잔 밑 여행'을 다녀와서



딸과 함께

/ 박상순 성도(남양주 은누리교회)

은 세상이 푸르게 변해가는 계절이다. 지난 어린이날 교회에서 '등잔 밑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나는 중학생 딸과 함께 참가했다. 등잔 밑 여행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가까이 있지만 소중함을 잘 모르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면서 가족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경기도 연천 일대 유적지를 돌아보기 위해 딸과 팔짱을 끼고 아침 일찍 버스에 올라탔다. 다른 성도들도 삼삼오오 버스에 뒀다.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부모들의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의 표정이 무척 밝아보였다.

출발 전, 박윤현 목사님께서 오늘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역사를 바로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다. 역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셨다. 기독교 성도들이 더 열심히 역사를 배워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를 태운 버스는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의정부와 동두천을 지나 연천 재인폭포에 도착했다. 해설사 임찬웅 집사님이 재인폭포에 얽힌 동화 같은 전설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밋세바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았다. 딸과 함께 폭포 앞에서 인증샷도 찍었다.

다음 행선지인 전곡리 선사유적지였다. 마침 구석기 유적지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창던지기, 원시인 분장하기, 구석기 바비큐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유원지 잔디밭에서 돛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었다. 식사 후에는 딸과 함께 한탄강의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거닐었다.

송의전도 다녀왔다. 송의전은 고려왕조의 사당이다. 조선왕조 때 세워진 사당이라고 한다. 왕의 혼을 모셔놓기 위해 신주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당을 지었다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 드리는 장면이 떠올랐다. 마지막 코스는 호로고루 고구려 성벽이었다. 임진강변에 이어지는 논밭 사이 길을 달리니 나타났다. 우리들은 군사가 되어 성벽을 기어올랐다. 자꾸만 미끄러지는 팔의 손을 잡아주었다. 드디어 성벽 꼭대기에 올랐다. 눈앞에 시원하게 임진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었다.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 옛날 군사들이 이 아름다운 곳에서 싸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딸과의 여행은 정말 즐거웠다. 다음에도 또 여행하자고 약속했다. 시원하게 뿜린 자유로를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행복만 가득했다.

■ 15기 치유사역자스쿨 수료 간증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 유진하 성도

추위를 참아가며 서빙고역에서 교회로 걸어온 것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다. 처음 치유사역자스쿨을 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분과 독대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다. 하지만 치유사역자스쿨에 있는 그 누구와도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내 마음은 닫혀 있었다. 시시때때로 마음을 침범하는 사탄들과의 싸움 속에서 나는 말라가고 있었다. 나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타인을 위해서는 피가 터져 나오도록 기도하지만,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오랜 금식으로 피를 머금을 수도 없는 건강 상태라며 금식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식사를 잘 하라는 한의사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멍해졌다. 한신하면 할수록 심해지는 폭풍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뽀빠해 진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다. 그 친구는 웃으면서 나의 금식이 자학이라는 것을 모르겠냐고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타인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도 나처럼 극한 신앙생활 속에서 생명이 없었다는 고백을 해줬는데

도 나는 듣지 않았다.

방언은 스스로를 위한 은사이기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장로님의 기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방언이 터지지 않는 것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안아 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장로님에게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장로님의 어머니님이 하신 것처럼 하루 10시간 가까이 기도하면서 몇 달을 보낸 적도 있다.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음성을 들었다.

이번 치유사역자스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고,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배웠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 더이상 인생은 슬픈 것이라며 체념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지 않다. 무수한 채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싶다. 다스리는 자로서 처음 주신 목적 그대로 회복하는 성령의 사람이고 싶다.

■ 대학청년부 Acts29 movement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 최승연 자매(여호수아공동체)

우리 팀원들은 모두 사도행전 29장을 실현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모였다. 우리팀원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는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

나는 은누리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대학청년부에서 이번에 시작한 Acts29 movement는 기다리던 나의 사도행전 29장이었다. 이 사역을 시작한다는 광고를 보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신청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이 마냥 신나고 기뻐했다.

그동안 은누리교회 같이 좋은 시설과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늘 아쉬웠다. 그래서인지 이 사역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팀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역교회를 섬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였다. 그런 귀한 팀원들이 모인 사역이라 그런지 시작부터 열매가 풍성했다. 사역이 시작

되면서 나와 팀원들에게 감사제목들이 쌓여가고 있다. 함께 기도하고, 매주 주일예배를 섬기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 섬기는 우리들이 오히려 더 큰 사랑과 기쁨을 받고 있다.

우리팀은 양재 지역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물씬 나는 작은 교회다. 이곳에 우리 팀원 10명이 파송되었다. 유초등부 및 중고등부 교사, 성인예배 싱어 등으로 섬기고 있다. 이 교회에서 청년예배를 만드는 일에도 헌신하고 있다.

이 사역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섬기는 사역현장에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갔으면 좋겠다.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가는 청년들을 계속 보고 싶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Acts29 Movement는 대청공동체에서 국내 미자립교회와 도움이 필요한 사회기관을 섬기는 사역이다.



권사칼럼 고영미 권사

나도 야생화처럼...

지난 토요일 친구와 남한산성에 갔다. 송파구 마천동으로 올라가 네 개의 문을 거쳐 다시 마천동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걸었다. 나는 다섯 시간 가량 걸리는 이 산행을 즐긴다.

친구와 함께 산을 가닐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야생화에 관심이 많던 친구는 “노랑붓꽃 좀 봐. 보기 힘든 꽃인데 여기 있네?”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 외에도 각시붓꽃, 철쭉, 애기나리, 붉은병꽃나무, 매화말발도리 등 다양한 꽃 이름을 읊었다. 친구보다 이 길을 수십 번도 더 다닌 내 눈에는 그 많은 꽃들이 그동안 왜 안 보였을까.

이 길을 다니는 등산객들 중에서 꽃 이름을 기억하고, 관심을 갖는 이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야생화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변에 크고 우람한 나무들이 가득해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피어났다. 척박한 토양, 변덕스러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초라할 정도로 작고 연약해 보이는 노랑붓꽃과 각시붓꽃이 내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야생화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그 모습 그대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해 손 흔들며 웃고 있는 것 같은 여린 잎사귀와 꽃잎이 참 예뻐 보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실까. 나는 교회 다닌지 30년, 권사 직분을 맡은 지 4

년이 되어간다. 어느 정도 성숙해질 법도 한데 아직도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다.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불평하며 투정부리는 모습도 순간순간 발견한다.

“단정하고, 일구이언(一口二言)하지 않아야 한다. 참소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라. 아담한 옷을 입으며 정절(貞節)로 단정하라. 금이나 진주와 같이 값진 옷으로 치장하지 말라.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직장에 다니는 이유로 소홀한 부분이 참 많았다. 그래서 지난 4월, 송파공동체 권사님들과 주일 9시 예배 중보기도를 섬기면서 중보기도 장례사역, 순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묵묵히 섬기고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등산로의 야생화뿐이었을까. 이제는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는 말씀 같이 주변을 돌아보며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싶다.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며, 삶의 현장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권사가 될 것을 다짐한다.



러빙유클라임 유미호 실장(한국교회환경연구소)

생명 살리는 녹색그리스도인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재앙으로 나타나는 환경문제를 생각하면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한낱 개인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지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해답은 주님이 자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이들을 칭찬하실 뿐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새 하늘과 새 땅’(계 21:1)이라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한 개인이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합성세제를 삼가고, 중고품을 사용하고, 물과 전기를 아껴 쓴다면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하고(생명밥상),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살고, 소비광고에 한 눈을 팔지 않는다면,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을 구하거나 가난한 이웃을 돕는 노력(녹색가독인삼계명)은 허찮은 것일 수 있지만 수천 명이 그와 같은 노력을 한다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일례로 생명밥상을 차리고 먹는다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또 그것은 파괴되고 해체된 공동체적 관계와 자연의 순환성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앞에서 책임 있

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각자가 환경을 해치는 습관은 고치지 않고, 굳이 먹지 않아도 될 음식, 입지 않아도 될 옷, 갖지 않아도 될 물건, 타지 않아도 될 차를 즐겨 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바꾸려 해도 그것은 위선일 따름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은 우리 개인의 생활방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자연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루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마 6:11).

자나침도 모자람도 다 창조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덜 가지고 덜 쓰고 덜 먹고 덜 버리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생명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임(시 104)을 믿는다.

당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변화시켜보자. 절제와 나눔의 삶,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삶,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삶, 휴과 농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러한 삶이 아팔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몸과 마음, 더 나아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이다. 생명을 살리는 녹색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신앙에세이 최성석 목사(이수공동체)

2012년 5월 13일 주일 밤 9시 예배

내가 온누리교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89년 봄이었다. 온누리교회를 알았다기보다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을 알았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형들을 따라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문화충격이 컸다.

내가 받은 첫 번째 충격은 교회로 향하는 버스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이었다. 어디에서 모였는지 모를 사람들이 모두 한 정류장에서 내려는데 그곳이 바로 온누리교회였다. 두 번째 충격은 앉을 자리도 없이 딱 찬 예배당이었다. 세 번째 충격은 찬양 중에 손을 들고 갑자기 일어서고, 부둥켜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찬송가 외에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도 놀라웠다. 네 번째 충격은 밴드였다. 내가 다녔던 교회에는 오르간과 피아노, 통기타 외에 다른 악기가 없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악기들로 연주하고 있었다. 여섯 번째 충격은 엄청난 크기의 스크린이었다. 그 스크린에 OHP필름을 이용해 가사를 띄웠다. 당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종이 패도에 가사를 적어 보여주거나 찬송가만 불렀다. 그때 받은 충격이 계기가 되어 매주 목요일마다 온누리교회를 찾았다. 주일에는 늦은 시간까지 혼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부하고, 잠을 잤다. 그 생활을 반복했다. 교회청소

를 돕기도 했다.

1991년 겨울로 기억한다. 매주 목요일 찬양집회를 참석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던 나는 어느 날 문득 서빙고 온누리교회 예배당에 올라가 찬양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요.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오랜 기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 있었던 적이 있었다. 찬양도 나와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다. 음악은 음악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했었다. 나조차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주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셨다. 잊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기적 같이 당신의 종의 자리로 부르셨다.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했고,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 더 멀리 도망치려 했었다. 주님은 그런 나를 불렀다. 그 엄청난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 참 많이 울었다.

2012년 5월 13일 주일 밤 9시 예배. 주님이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신 날이다. 그날 20여 년 전 했던 기도가 생각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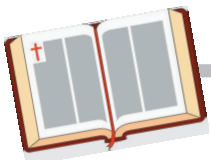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인도자로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성령들이 있는 자리도 제게는 버겁습니다. 부끄럽지만 저기 단 위에 있는 궤이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분들처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궤이어 뿐 아니라 성령과 예배인도자의 자리까지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요. 기도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마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다 내려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꿈을 주신 주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할지라도 기억하고,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꿈을 직접 이루어 주신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사 55:9).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모세의 얼굴의 광채

모세의 광채 나는 얼굴을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들의 문제이지 모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수건을 쓴 것이 모세에게는 겸손의 징표지만 백성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그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동안 빛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모세의 수건을 중재자 모세의 한계, 율법의 한계고, 옛 언약의 한계라고 평가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더라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 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고후 3:7-8).

모세의 영광은 돌에 새겨진 영광이었습니다. 그 직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 우리는 영의 직분이요, 새 언약의 직분인데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는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고후 3:13-16).

이 사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모세는 겸손의 상징으로 수건을 썼습니다. 백성들을 배려해서 쓴 것입니

다. 그런데 그 수건은 율법의 한계, 옛 언약의 한계, 백성들의 한계, 중재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수건을 안 써도 됐습니다.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수건으로 덮여져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벗고 만나야 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광

모세를 의심하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수건을 써야 했습니다. 영광의 광채로 얼굴에서 빛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 면도를 하려고 거울을 보았는데 그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수건을 벗고 나간다면 그때부터 백성들은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진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이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을까봐 얼굴에 광채는 사라졌는데 계속 수건을 쓰고 나간다면 그것은 영광스럽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

순전히 상상이지만 일리 있는 상상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광채가 사라졌는데 그 영광이 계속 있는 것처럼 수건을 쓰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 나갈 때 수백 개의 금방패를 들어서 왕의 영광을 표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금방패를 이집트왕에게 모조리 빼앗기자 못으로 만든 놋방패와 청동방패를 만들어 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영광은 잊어버렸는데 금방패가 없으면 청동방패라도 쓰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의 해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세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고후 3:18).

모세는 수건을 썼지만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얼굴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광채가 비출 것입니다.

모세의 영광은 순간적, 일시적으로 빛나 사라졌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주어진 주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Talk Talk 열왕기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열왕기 9 : 엘리야와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한다(막 8:27-28).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말 4:5)때문이지만, 엘리야와 예수님이 닮은 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닮은 점이 있다. 먼저 ‘급식 이적(먹을 것을 공급해주시는 이적)’이 닮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 3년 기근동안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셨다(왕상 17:16). 예수님은 엘리야가 시돈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고(눅 4:26), 또 당신께서 직접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명을 먹이셨다. 이 이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요 6:14)라고 말한다.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자. 사르밧 과부와 아들, 그리고 엘리야가 3년 동안 하루 두끼를 먹었다고 하면(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아침과 저녁만 주셨다) 약 6천 명이 한 차례 먹은 셈이 된다. 숫자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러나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는 분이시다(요 6:27). 예수님은 엘리야와 닮되, 그를 뛰어넘는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도 닮았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기도하여 다시 살려내 그 어머니에게 준 것처럼(왕상 17:17-24),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 그

어미에게 돌려주셨다(눅 7:11-17).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성문에서 만난 것처럼,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를 성문에서 만나신 것까지 유사하다. 엘리야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죽음에 넘겨진 자를 다시 찾아 되돌려주시는 생명의 주님, 권능의 주님이시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려냈다면, 예수님은 청년에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눅 7:14)고 명령하시자,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과 같은 분이요, 즉 생명의 주님이심을 일일 보여준다.

그래서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눅 7:16)고 외쳤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보다 크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은 자식마저 잃은 과부를 긍휼히 여기사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셨다.

엘리야가 가뭄과 기근 속에서 고생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독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 돌본 것도 약한 자 중에 약한 자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준다.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그의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급식 이적을 행한다.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빗을 진채 죽자 갇을길 없는 그의 부인에게 기름을 넘치도록 주어 빗을 갇아준다. 또 그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다. 어디 그뿐인가? 엘리사는 수넬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이적도 행한다(왕하 4장).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다. 베드로 역시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이적을 행한다. 그가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모습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자기가 거하던 다락방에서 살려낸 모습, 또 엘리야가 지붕 위에 자기 방에서 수넬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모습과 흡사하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엘리야-엘리사로 이어지고, 예수님에게서 절정을 이루다가 사도들에게서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일들은 엘리야를 연상케 한다. 그래서일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화하실 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눴다. 왜 하필 엘리야와 모세였을까? 혹자는 모세는 모세오경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여, 이 두 사람이 구약을 상징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은 모세오경과 선지서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 모세와 엘리야 모두 호렘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출 3장, 왕상 19장).

그런데 지금은 산에서 용모가 변화하시고 희어져 광채가 나는 옷을 입으신 예수님, 곧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호렘산에서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이란 뜻이 아닐까?